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

구본승 의원 발의, 협동경제공동체·일자리 창출 기여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에 개최된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9월 3일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구 지역의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의료,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소감을 말했다.

북부신문 7면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구본승 의원, "지역 협동경제공동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개최된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구본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구 지역의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의료,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전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구본승 의원 발의, 지역 협동경제공동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에 개최된 제

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구본승 의원은 지난 9월 3일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회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구 지역의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의료,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소감을 말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

구본승강북구의원 “지역 협동경제공동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개최된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3일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본승 의원은 “조례 제정은 강북구 지역의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의료,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윤 추구가 아닌 협력과 나눔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